

# 미래차 선도도시 광주, 닷 올렸다

국가산단 유치 기념 비전 선포식  
혁신·연계·실증 3대 키워드 제시  
강 시장 “새로운 미래 만들 것”

광주시가 미래차 선도도시 실현의 닷을 올렸다.

광주시는 29일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클럽(GCC) 1층 VX스튜디오에서 ‘광주 미래차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은 14년 만의 100만평 규모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를 기념하고, 미래차 선도도시 도약을 다잡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는 오늘 새로운 꿈을 선언한다.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누구도 선점하지 못한 성장성이 무한한 미래차로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의 기회를 준비하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혁신, 연계, 실증’ 3가지 키워드를 들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클럽(GCC) 1층 VX스튜디오에서 열린 ‘광주 미래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폴 월슨 구글 아시아태평양일본지역 공공부문 총괄이사,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를 위해 광주시는 ▲미래차 산업기반 강화 ▲도시 전체 테스트베드 활용 ▲지역기업 성장 ▲미래차 기술역량 향상 등 4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광주시는 정부와 함께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대폭 줄이고 소부장 플랫폼, 미래차 전장부품 특화육성, 차세대 전략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자동차부품

개발, 시험평가 인프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실증장비 구축 등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차산업 단계별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전환, 광·AI산업과 미래차산업의 융합 등 산업 확대에도 힘을 모은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부품개발 및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연구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품자체 수급률 200% 신장, 자동차 매출액 20% 확대, 자율주행 레벨4 실증, 미래차 전환기업 100개 달성 등 25만여명의 고용, 10조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준영 기아대표이사, 폴 월슨 구글 아시아태평양일본지역 공공 부문 총괄이사,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와 대학 총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 광주가 친환경 미래 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 월슨 총괄이사는 자회사인 웨이모(Waymo)의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 서비스, 안드로이드 자동차, 구글 지도를 활용한 기술 혁신 등을 소개했다. 웨디 바우어 아마존 웹서비스(AWS) 글로벌 자동차 사업 부문 총괄대표도 영상 기조연설에서 광주시와 AWS의 성공적인 협업 의지를 피력했다. /김용현 기자

## “광주와 통합 전제, 군공항 받아들여야”

함평서 이달 세 번째 설명회  
빛그린산단 경자구역 등 요청

함평군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서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의 통합을 전제로 군공항을 받아들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평군사회단체 연합회와 광주시, 국방부는 29일 오후 함평군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광주 군공항 함평군 이전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함평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설명회에는 유치위는 함평군과 광주시의 통합을 전제로 군공항이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근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전지로 선정된 경북 군위군이 오는 7월 대구시와 통합되는 사례를 들었다. 군위군은 신공항을 유치하면서 330만㎡ 규모 공항신도시 조성, 25km 길이 동서관통도로 개설 등을 약속받았다.

유치위는 군위군의 사례처럼 함평이 광주

시로부터 군공항을 이전받는 대신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사업을 요구했다.

광주와 함평에 걸쳐 조성된 빛그린산단 중 현재 함평 부지 내 빛그린산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곳 주변 660만㎡에 주거·산업 복합 배후도시를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군공항을 기점으로 빛그린산업단지, 배후도시를 거쳐 함평읍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건설도 주장했다.

아울러 함평항과 돌머리해수욕장 등을 잇는 편도 2차선 도로 신설·확장을 비롯, 이곳 주변과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테마파크 조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치위는 군공항이 이전돼야 할 구체적인 위치로 함평군 나산면 일대를 주문했다. 빛그린산단과 광산구 삼도동 사이로 활주로를 놓을 경우 함평군 해보·월야면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놔다. 그러면서 부지를 현재 광주 군공항 대비 2배 가량 넓혀 소음완충구역을 충분히 확보할 것도 촉구했다.

오민수 변영회장은 “함평군이 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농업 보조금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군정 조직, 군의회, 예산 혜택은 물론 농

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 혜택 또한 유지될 것”이라며 “대규모 SOC 투자로 땅값 상승도 기대된다. 군민이 우려하는 소음 대책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장혁동 함평군농민회 군공항 유치저지 정책실장은 “함평군은 연간 예산 25조원을 넘게 운용하는 전남도를 통해 1인당 약 1,600만원의 예산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며 “반면 연간 예산 7조원에 불과, 1인당 400여만원 예산 혜택을 주고 있는 광주시에 편입될 경우 지역이 그간 누려온 특혜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은 민간공항이 빠진 군공항만 받는 상황이라 인구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신축 군공항 규모 또한 15.2㎢로 알려지면서 전국구급이다. 다루는 항공기 편대 규모도 커져 소음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전투비행장 함평 이전 결사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함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위원회와 함평군, 광주시의 입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 광주·대구 ‘2038 하계AG’ 유치 본격화

대한체육회에 개최 계획서 제출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에 본격 뛰어들었다.

양 시는 29일 서울 대한체육회를 방문,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이 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출한 서류는 대회 개최계획서 및 요약보고서, 유치 희망 도시 이행각서, 유치 희망 도시 시설물 사용허가서, 공동유치 업무협약서 등이다.

광주와 대구는 지난 2021년 5월 국회에서 광주·대구 공동유치 선언 및 협약을 체결하고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대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유치 준비

위원회 출범, 100만 달빛 서평 캠페인 공동 추진, 기반 조사 및 경제효과분석 공동연구,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추진했다. 지난 2월에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거쳐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개최계획서를 완성했다. 양 시는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최계획서 제출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유치희망도시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국내 후보 도시를 확정하게 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 기획재정부 심의,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유치신청서 제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의의 현지실사 등 절차를 밟아 최종 개최도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 시,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

광주시는 29일 “문화재청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지역 내 마한유적지 현황과 특성 등이 담겼다.

광주시와 나주시가 2022년 각각 추진한 마한 용역에 따르면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에 분포해 있는 마한역사문화유적은 620 곳이다. 이중 광주 103곳, 나주 155곳, 영암 56

곳, 해남 31곳 등 마한유산이 분포돼 있다.

광주 마한유적은 시기적으로 마한의 형성기에 해당하는 신창동 유적, 소멸기에 해당하는 월계동 장고분과 명화동 장고분이 모두 분포하고 있어 고대마한의 시작과 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광주는 대규모 생활 취락유적으로 2000년 전 마한사람의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도시

### 우리동네 빵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 1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수립
- 2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 3 창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협업 네트워크 연결



창업의 가치를 더해 함께 성장하고,  
스타트업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 동구창업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TEL. (062) 608-3991~3993  
FAX. (062) 608-2719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일자리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광주광역시동구 창업지원센터  
GWANGJU DONGGU

### 광주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소공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얼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지원

[www.gjewelry.or.kr](http://www.gjewelry.or.kr)

**1F** · 주얼리 전시판매장  
· 주얼리 체험공간

**2F** · 공방장비실

**3F** · 교육실  
· 세미나실  
· 바이어 상담실  
· 운영사무실

**광주주얼리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충장로 5가)  
TEL. (062) 608-3994  
FAX. (062) 608-2719

